



Definition of Fidelity

평범함을 거부하는 명료하며 충실도 높은 사운드의 엔트리급 앰프의 등장.

PRODUCT System fidelity SA-250
TYPE Integrated amplifier
PRICE ₩550,000
KEY FEATURES Size(WHD) 430x80x287mm ● Weight: 5.3kg ● Power output: 60w@4ohms ● Frequency Response: 10Hz - 63kHz (-3dB)
CONTACT ☎ 02 971 8241 ● www.taerin.com



지난 달, 본지에서 시스템 피델리티의 창립 배경이라던지, 추구하는 방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비교적 입문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저렴해 보이지는 않은, 나름 센스가 느껴지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대다수 음악 애호가들은 스피커에 대한 기대치가 디자인보다는 음질을 우선시 하겠지만, 더 많은 일반인들은 오디오에 대해 음질 이상으로 디자인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B&W는 제대로 파악한 셈이다.

저렴한 오디오 하드웨어 브랜드는 많다. 오래된 일본의 몇몇 국민 브랜드들, 그리고 각 대륙별로 한두가지씩은 존재하는 실용 브랜드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국적 브랜드까지... 그런 가운데서 시스템 피델리티가 내세울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은 무엇일까?

본 필자가 보기에는 시스템 피델리티의 제품에서는 천상 영국 오디오의 채취가 어렵듯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디자인도 그렇고, 설계 방식도 그렇고, 음색적으로도 그렇다. 영국의 실용적 오디오를 대표하는 아감, 크릭, 네임, 퀴드 등의 성격이 골고루 섞여진 이미지가 바로 시스템 피델리티의 색깔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내노라하는 경력을 가진 오디오 업계 관련 인물들(마케터에서 엔지니어까지)이 의기투합하였고, 그에

걸맞은 마케팅과 경영 방식과 방향이 만들어낸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제품들 중, 가장 저렴한 초기 입문용 앰프인 SA-250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 모양새는 깔끔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격 만큼 저렴해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한다.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알루미늄 패널에는 인터 앰프임에도 넓직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부드러운 노브와 각종 입력 선택 버튼들을 가지런히 배열해 지극히 모범적이면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내부를 봐도 지극히 모범적이며 알찬 구성을 보여준다. 가격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크기의 토로이달 트랜스가 장착되어 있고 그 옆에 앰프 회로를 배치했다. 전원 콘덴서의 용량은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지만 세련되고 순발력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용량이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 제품이 설계되기도 했다. 그 옆으로 중앙을 가로 지르는 방열판을 놓고 각 채널별로 2개의 증폭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다. 별도로 분리한 아날로그 회로 또한 모든 부품들이 충실하면서도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어서 신뢰감이 간다.

사운드 퀄리티

소리 성향은 전형적인 산뜻하고 세련된 스타일. 저렴한 앰프들에서 나타나는 답답함이 없어서 좋다. 신선하고 깨끗하며 산뜻하다. 여기서 말하는 산뜻하다는 표현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과도하게 저음을 부풀리지도 않았고, 답답하지 않은 중고음이 세련되게 충충거리면서도 섬세하다.

다소 여성스러운 사운드인데 저음을

괜히 강조해서 전체 음조를 지저분하게 만들기 보다는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저음을 재생하면서도 중고음의 섬세함과 순수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다수 엔트리급 앰프들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던 깔끔하면서도 순수한 맛이다.

구동력은 어떨까? 태생 자체가 실용성에 포인트를 맞춘 입문 기종이라서 구동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앰프는 아니다. 대신 다소 가볍게 느껴지는 중저음의 아쉬움을 고급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세련된 중고음의 질감이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음 자체가 안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저음에 대한 큰 기대는 좋지 않다는 뜻이다.

초강력 파워의 구동력은 아니지만 어떤 스피커를 연결하더라도 마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색한 티를 내지 않는 온화한 사운드 전개는 저렴한 가격의 앰프임에도 상당히 칭찬해 줄만한 장점이다.

이제는 무조건 실용적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실용 브랜드도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해야만 팬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피델리티 SA-250은 엔트리 기종의 비슷한 앰프들 사이에서 가장 신선한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이다. 디자인만 보더라도 참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 브랜드에 피델리티(Fidelity)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운드다. 50만원 내외에서 알찬 앰프를 구하고 싶다면 꼭 청음해 볼 것을 권한다. **HFC**

주기표